

# 다구를 찾아서

7 천목산



## 가마 속 불길이 찻잔 속에 담겨지다

송나라의 음다법과 다구는 주변국인 고려와 일본에 전해져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일본에는 현재까지도 송대의 음다풍속이 거의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천목잔(天目盞)은 일본인의 독특한 미감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다구이다.

천목이라는 이름은 천목산(天目山)이라는 지명에서 유래한다는 설과 송나라에 유학한 선승이 천목산에서 가지고온 검은색 유약이 칠해진 다완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천목잔은 처음에는 송대 건요(建窯)에서 만들어진 건잔(建盞)을 의미했지만 후에 길주요(吉州窯)의 찻잔도 천목이라 부르면서 흑색계통의 자기는 모두 천목이라 불렀다. 특히 에도(江戶)시대에는 다완이나 도자기의 대명사로서 사

학한 선사는 직접 건잔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잔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을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찻잔은 현재 말차(末茶)를 할 때 사용하는 다완과 다를 것이 없다. 가마쿠라 시대의 건잔은 선종과 관련된 사원에서 주로 사용됐다. 뒤이은 무로마치시대(室町時代, 1338-1573)에 이르러 최고의 찻그릇으로 칭송을 받았으나 모모야마시대(桃山時代, 1574-1600) 센노리큐의 와비차가 등장으로 천목잔에 비해 소박한 조선 다완이 애호돼 오고 있다. 일본에서는 천목다완의 종류를 요변(曜變, 또는 窯變), 유적(油滴), 화목(火目), 대피(灰皮), 목엽(木葉) 등으로 나눈다. 특히 푸젠성(福建省) 건요와 장시성



측면

대피천목(灰皮天目) 남송 길주요(吉州窯) 경도국립박물관(京都國立博物館) 소장. 높이 5.1cm 지름 15.3cm.



윗면

용되기도 했다. '천목잔'이라는 명칭은 1335년에 출간된 <대일본사료(大日本史料)>에서 처음 보인다. 중국 저장성(浙江省)에 위치한 천목산은 임제종 승려 고봉원묘(高峰圓妙, 1238-1295)가 15년간 머물렀다가 입적한 곳으로 송대에는 일본 유학승이 많았다.

가마쿠라시대(鎌倉時代, 1192-1333) 에이사이 선사(榮西禪師, 1141-1215)는 일본 임제종의 시조이자 차의 원조로 불린다. 그를 차의 원조라고 하는 이유는 두 번째 송나라 유학에서 귀국한 후 전한 점다법(點茶法)이 오늘날까지 일본 다도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에이사이 선사는 <적다양생기(喫茶養生記)>에 당시 찻잔의 유형을 알 수 있는 구절을 기록하고 있다.

"구(甌)란 찻잔의 아름다운 이름이다. 구연부는 넓고 바닥은 좁다. 다탕(茶湯)이 오래도록 차갑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릇의 바닥이 좁고 깊은 것이다. 작은 그릇의 이름이다. 얇은 잔은 차 마시기에 나쁘다."

이 글에서 선사는 직접적으로 건잔이라는 명칭은 쓰지 않았어도 건잔의 주요 특징을 설명했다. 특히 바닥이 좁고 깊은 찻잔이 차가 오랫동안 식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차를 마시는 사람의 오랜 경험과 관찰이 필요한 대목이다. 송의 선종사찰에서 수

(江西省) 길주요에서 생산된 흑유약이 주종을 이룬다. 요변천목은 검은색 유약이 다완의 안과 바깥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결장이 떠오른 것을 말한다. 이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예상치 못한 가마 속 불길의 변화로 생긴다. 그래서 상등품의 요변천목은 극히 드물어 일본에서 문화재로 등록된 6점 외에는 아직 발견된 것이 없다. 유적천목은 유면이 있는 반점이 마치 물에 떠있는 기름얼룩처럼 보인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중국에서는 적주(磁珠), 은성반(銀星班)으로 부르는데 토끼 털 무늬가 있는 건요의 대표적인 찻잔을 가리킨다. 대피천목은 찻잔의 문양이 거북의 등껍데기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부분은 길주요에서 생산된 것으로 여러 가지 길상 문자와 문양을 도자기에 입사해 만든 것이다. 목엽천목은 대피천목의 한 종류로 도자기에 나뭇잎이 내러앉은 채 소성돼 유약의 농담과 색상의 차이로 나뭇잎이 자연스럽게 새겨진 다완이다.

백기란 bdaol@hanmail.net 동아사이버문화연구소 연구원

##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건이야기

26 대홍사 부도발



깊었던 세월 한 순간에 접고 앉은 이름 두 글자. 서로의 몸으로 빛은 돌덩이에 그 이름을 다시 얹고 다시 긴 세월을 살아가고 있다. 겹쳐진 시간 속에서 만났던 스승과 제자는 이제야 시간의 순서를 버리고 앉았고, 말 없는 순간순간은 그 때를 기억해내고 있었다. 대홍사 부도발에는 서산대사를 비롯해서 초의·호암·상월 등 13분의 대종사와 만화·원오·광령 등 13 분의 대강사 그리고 그 외 여러 스님들

의 부도가 있었다. 부도의 수도 많았지만 그 이름의 무게들도 만만치 않았다. 역불(仰佛)의 시대에서 불교를 지켜낸 보우 스님에서 비롯된 계보가 한 자리에 있었다. 잊을 수 없는 이름들이었다. 묵은 낙엽이 부도 언저리를 맴돌고, 불어온 봄바람이 그 잊을 수 없는 이름들을 다시 한 번 읽어내고 있었다.

## 옛 관화의 세계

## 구양수가 잘못을 깨닫다 (警歐陽脩)

이 삽화는 송나라 때 간의대부 구양수가 여름으로 돌아가는 길에 뱃길이 구강을 거쳐 가게 되자, 여산을 유람하면서 겨울 선사를 찾아가는 장면이다. 구양수는 사천성 출신으로 북송 때의 시인이자 사학자요, 정치인이었다. 구양수는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통해 정계를 개혁하고자 했던 인물이었다. 배불의 중심인물이었던 구양수는 겨울 스님과의 만남으로 인해 불교 비방을 멈추게 됐다. 뿐만 아니라 조정에 나아가서는 겨울 스님의 법을 칭송했다. 또한 세시에 따라 편지로 문안하는 일을 한 번도 끊은 적이 없었다.

겨울 스님은 북송 때의 승려로 성은 견씨이며, 이름은 정교(淨固)이다. 11세에 출가해 17세에 득도했고, 시방정고선원의 개산조가 됐다. 겨울 스님은 황제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고 수행에만 정진했던 수행자로 유명하다. 중국의 인조(仁祖) 황우(皇祐) 초년(1049년)에 조정에서 환관을 파견했다. 황제는 비단에 조서를 적어서 겨울 스님을 큰 절인 효자사(孝慈寺)에 머물도록 청했으나, 겨울

스님은 병을 핑계로 일어나지 않고 대신 소문(疏文)을 올려 대각 스님을 추천하는 것으로 조정의 부름에 답했다. 이 같은 겨울 스님의 일화는 수행자의 사표가 되고 있다. 겨울 스님은 구양수와 의 만남에서 이 같이 말했다. "속담에 이르기를 '사람을 잘 때 도하면 다른 사람도 역시 그를 때도한다'는 말이 있는데 귀하는 예전에 본론(本論)이란 글을 저술해 쉬지 않고 불교를 허무는데 힘써왔으니 대중들이 황제가 듣는 앞에서 공을 헐뜯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구양수는 스님의 이 같은 말에 자신의 정치개혁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다. 실제로 구양수는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개혁하려고 자신의 뜻을 펼쳤으나, 오히려 자신을 헐뜯는 모함에 걸려 자주 곤경에 처한 일들이 역사에 기록돼 있다. 이와 같은 겨울 스님의 말씀은 통해 우리 자신들도 자신의 일을 관철하고자 할 때 남을 때도하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점검해볼 일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관화박물관 관장)



고관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경구양수(警歐陽脩). 불암사판 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18.0cm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종 요가마을

**민속죽염** 22년전통 조상의 얼과 온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응축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마용)  
기본 배움버 2500원 (50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ij.co.kr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광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호기과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트레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든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 칼라 지붕 공사

수제화 고무신코 만행화

최고의 선물

특무명 3목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20-280mm (5mm단위)  
• 색상 : 진회색, 검정

특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진회색

지압·동떨창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망사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조각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자연색

3-1밴드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85mm  
• 색상 : 검정, 회색

3-1끈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85mm  
• 색상 : 검정, 회색

가죽 20,000원  
• 사이즈 : 230-280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 (구자민) 합장

NAVER  
인터넷쇼핑을 만행화를 검색해보세요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